



좋은 친구

FRIENDS

2026. 1.
Vol.020

사단법인 프렌즈는 2006년 오륜교회와 뜻있는 분들이 심은 소중한 씨앗으로 시작되어,
현재의 국제구호개발 NGO로 성장하였습니다. 외교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현재 지구촌 18개국 29개 사업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표지 이야기



1. 수업 시간에 더욱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도네시아 PSA 아이들!
이 아이들의 멋진 꿈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응
원합니다.



2. 프렌즈와 해외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KT&G가 돈의동 쪽방촌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한 한과구호키트 400개를 만들어 전달
했습니다. KT&G 방경만 사장과 임직원들의 사
랑의 마음도 함께 나누는 훈훈한 현장이었습니다.

반기간 <좋은친구 FRIENDS> vol.020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발행정보 제20호
발행일 2026년 1월 31일
발행인 주경훈
기획편집 (사)프렌즈 대외협력팀
주소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89
금성빌딩 2층
전화 02-483-5007
E-MAIL friends@hifriends.or.kr
Facebook hifriends153
Instagram friends.n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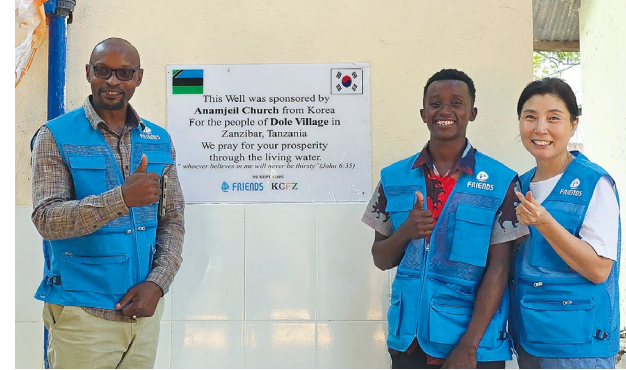
사단법인 프렌즈 *이사장 이하 가나다 순
이사장 주경훈(오륜교회 담임목사)
이사 고일국(오륜교회 목사)
김명진(크리스탈치과 원장)
박명례((주)한국생명과학연구소 연구소장)
신현수(코모키이비인후과 원장)
옥유수(하나웰니스(주) 대표이사)
윤승철(시카고치과 원장)
최병룡(밝은누리안과 원장)
감사 마철현(세무법인 민화 대표 세무사)

2025년 7월 1일~ 12월 31일 신규 후원자분들입니다.

개인 KIMEU KIMJAMES SHANDY 강민성 김문기 김동희 김미소 김미진 김신원 김영철 김유심 김은경 김은진
김인경 김정권 김준혁 김지성 김창국 김해솔 김현진 김화숙 노서영 노승완 류경지 마성재 문태정 문하영
민수진 박민주 박사라 박소연 박영빈 박정아 박종서 박진순 박현아 서연자 서예찬 서지혜 손정순 신계숙
신동현 신명숙 신정민 신진호 양금희 양혜원 엄서영 오재솔 오정현 우재현 유영숙 유지영 윤경언 윤광미
윤선미 윤지오 윤춘식 윤 희 이경애 이미숙 이민주 이수진 이순화 이승재 이영임 이정화 이지선 이지수
이지윤 이희정 익현/숙현/린나 임미숙 임주찬 임현경 장택한 전영복 전정현 전효준 정한경 정화례 정현린
정희진 조민호 차재만 최 민 최영희 최예리 최현주 하주경 한복민 홍석균 홍하림

단체 국제약품 대웅바이오 동국제약(주) (주)마더스팜 매널티제약(주) (주)새시대종합개발
에스케이케이미칼(주) 오륜교회청년10부 (주)이노트론닉 제이더블유신약(주) 조은경희한의원
주차바로약국 한국산텐제약

“ 프렌즈의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CONTENTS

- 04 인사말
박명례 (사)프렌즈 이사
- 05 해외사업 '하나'
인도양의 진짜 보석은 누구일까요?
- 탄자니아 사업장 이야기
- 08 해외사업 '둘'
PSA, 꿈을 찾아가는 시작점
- 인도네시아 홍요셉&마리아 활동가
- 12 해외사업 '셋'
프렌즈의 새 가족,
코िका YP 박대용, 김하린 간사를
소개합니다!
- 16 국내사업 '하나'
꽃처럼 아름답고, 별처럼 빛나는
아이들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 이순화 오륜레인보우지역아동센터장
- 18 후원자스토리
먼저 경험한 사랑을
기쁨으로 흘러보내요
- 서승권&권태정 후원자
- 22 프렌즈 News
2025 프렌즈 하반기

프렌즈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사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서 NGO 설립을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절차를 알아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길을 모색하던 중 이미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프렌즈로부터 이사직을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꿈꾸던 일을 이곳을 통해 실현할 수 있겠다는 확신과 함께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이사직을 맡게 되었고, 처음에는 설렘과 책임감이 교차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감사와 보람으로 채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프렌즈는 이름처럼 늘 '친구'의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왔습니다. 작은 나눔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이 단체가 가진 힘과 의미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이야말로 프렌즈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프렌즈의 여러 활동을 함께하며 NGO의 진정한 가치를 체감했습니다. 또한, 아동결연으로 맺어진 아이들의 편지를 받을 때의 따뜻함과 작은 기쁨도 프렌즈를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봉사 현장에서 만난 이웃들의 환한 미소,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분들의 헌신적인 마음, 그리고 이사님들과 함께 나눈 고민과 토론은 모두 저에게 큰 배움이자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길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사회를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특히 지난 2025년 4월, 카자흐스탄 코리안센터 개관식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던 경험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위상을 현지에서 체감하며, 우리 단체가 국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사실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후원사인 KT&G, 현지 파트너 기관인 알마유대학교와의 업무 친밀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도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프렌즈가 앞으로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고,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프렌즈는 '친구 같은 마음'으로 더 많은 이웃과 함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단체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저 역시 이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헌신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회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프렌즈가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프렌즈
이사 박명례



인도양의 진짜 보석은 누구일까요?

탄자니아 사업장 이야기

지금은 잘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을 하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83년에는 50세 이상 국민이 200만 원을 1년간 예치하는 조건으로 연 1회 유효한 관광 여권을 발급받아 관광을 갈 수 있었고, 이후 연령대가 점차 확대되다가 1989년에 전면 자유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한 요즘, 여러분의 추억에 남아 있는 가장 잊지 못할 여행지는 어디였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산과 바다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를 더 선호하시는지요? 바다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봤을 법한 곳, 누군가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이라고 극찬했던 곳, 에메랄드빛 바다와 아름다운 산호초, 2000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스톤 타운에 풍부한 향신료까지 여행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잔지바르'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동쪽 해안에 자리한 잔지바르는 '인도양의 보석'이라고 불리는데, '검은 해안'을 뜻하는 페르시아어 'Zangbār'에서 유래했지만, 실제로는 푸른 바다와 눈부신 백사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잔지바르와 프렌즈, 그리고 알비노

그러나 이 아름다운 섬에는 과거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던 아픈 역사가 숨어있습니다. 또한, 노예무역과 같은 극한의 상황은 아니지만, 관광지의 명성을 따라 일자리를 찾아왔다가 정착하지 못한 채 빈민촌에 모여 사는 가난한 이들의 고통과 슬픔도 공존합니다. 프렌즈는 2019년부터 현지 파트너 기관인 KCFZ(잔지바르 한국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잔지바르에서 아동결연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Wiser Academy 시설 증축과 그룹홈 청소년들을 위한 컴퓨터, 운전 교육 등 직업훈련을 지원했으며, 국립병원인 음나지모자병원의 소아 환자를 위한 성탄 행사와 물품 후원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돌레 지역에서 함께 우물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깨끗한 식수를 선물하기도 하였습니다. 탄자니아 결연 사업은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중에는 특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알비노'라고 불리는 아동들입니다.

‘하얀’이라는 뜻을 가진 알비노(albino)는, 멜라닌 색소에 이상이 생겨 피부, 털(모발), 눈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 색소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유전 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세계적으로 평균 17,000명당 1명에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발병률이 더 높고, 특히 탄자니아에서는 1,400명당 1명에게 생길 정도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비노는 흑인이지만, 하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하얀 흑인’입니다.

편견 속 알비노의 현실

알비노는 단순히 피부색만 다른 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평범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멜라닌 색소는 자외선으로부터 눈과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알비노는 아프리카의 강한 햇빛에 취약하므로 노출이 계속될수록 피부와 눈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암 발병률이 매우 높고, 심각한 안과 질환을 겪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자외선 차단제 같은 보호 제품이 없다면 평균 수명도 일반인들보다 짧고, 피부암이나 알비노 증후군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이나 노년의 알비노를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강한 햇빛이나 피부암보다 이들을 더 괴롭히는 것은 특이한 외모 때문에 마을에서 따돌림과 조롱, 괴롭힘을 당해서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들의 신체 일부가 행운이나 권력을 가져다준다는 미신 때문에 납치, 신체 훼손, 살인과 같은 끔찍한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비록 알비노라 하더라도 적절한 지원을 받고, 관리해 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한 편견으로 인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알비노와 함께하는 패밀리데이

알비노의 바램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뛰놀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평범한 삶을 바랄 뿐입니다. 이들에게 절실한 것은 편견 없이 바라봐 주는 따뜻한 마음과 배려, 그리고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줄 자외선 차단제, 모자, 기본적인 의료 지원입니다. 탄자니아 정부 또한 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지만,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프렌즈는 현지 활동가와 함께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그 첫걸음을 ‘패밀리데이’로 정했습니다. 매년 지역의 취약계층을 초대해 개최하던 패밀리데이의 대상을 이번에는 알비노로 정하고 좀처럼 외출하지 못하고 제한된 생활을 하는 알비노 친구들을 초대해 용기를 북돋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직원들의 기획과 관할 공무원과의 협력을 통해 마침내 알비노와 함께하는 패밀리데이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드물다 보니 소식을 듣고 인근 지역에서부터 먼 거리에 사는 아이들까지 많은 아이가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혼자 오는 것이 어려워 동행한 가족들까지 모두 모이니 행사 장소는 100명이 훨씬 넘는 많은 사람으로 북적였습니다. 알비노의 특성상 야외 활동은 어렵기에 실내 활동 비중이 클 수밖에 없었지만, 야외 활동을 원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가면을 쓰고 오랜만의 야외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환한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집과 일정한 공간 내에서 주로 가족과 함께 지내던 아이들은 모처럼 많은 사람과 만나 뛰고 달리고, 게임에 참여하며 예쁜 카드와 소품을 만들었습니다. 알비노에게 꼭 필요한 선물도 받고, 비슷한 아픔을 겪는 친구들 속에서 웬지 모를 편안함과 동질감을 느끼며 진한 위로도 받고, 그렇게 즐겁고 또 따뜻한 하루를 만끽했습니다.

알비노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아쉽게도 패밀리데이는 이제 끝이 났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교육의 기회, 의료적 혜택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알비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도 해야 합니다. 현재는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알비노 아동들과의 결연 확대도 필요합니다. 자신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는 후원자가 있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그 어떤 지원보다 든든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비노의 특성상 중년과 노년의 알비노를 보는 것이 어렵지만, 행사장에는 여러 명의 중년과 노년의 신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알비노 아동들이 더 큰 세상 속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아이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는 질병으로 소외되거나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는 더 좋은 세상이 되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인도양의 보석

사람들은 잔지바르가 인도양의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보석은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알비노 친구들,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며 후원하는 여러분들이 아닐까요? 그 보석이 빛을 잃지 않고 영원히 반짝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PSA, 꿈을 찾아가는 시작점

인도네시아
홍요셉&마리아 활동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하는 NGO들은 어떤 사업을 지원할 때마다,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요셉, 마리아 활동가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과제를 마을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해결하며 풀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PSA 소개 및 배경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인사드리는 홍요셉, 마리아입니다. 저희는 2004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필리핀을 거쳐,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CHE(Community Health Education)'사업은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활동이며, 또한 이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지역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며 지속 가능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렌즈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지역 주민들에게 마스크와 긴급구호키트를 나눠주는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만났는데, 현재는 'PSA(Project Sahabat Anak)'라는 프로그램에 협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PSA는 어린이 CHE 사업과 방과 후 교실이 접목된 사업으로, 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낙후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경제적 또는 지리적 이유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베프(베스트 프렌드)가 되어 주자!"는 슬로건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PSA는 단순히 학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지 않고, 아이들이 사회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에서 모두 성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 형태로 진행되지만, PSA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통합적이고도 진정성 있는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다가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PSA

도시 빈민가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날 배운 영어 표현은 그날 사용해 보기!'를 실천하는데, 그날도 빈민가를 방문한 외국인들과 대화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영어를 배운 아이 중에 '야스민'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영어를 배우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업 중엔 항상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자신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야스민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점차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야스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내어 배운 문장들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차례로 용기를 내어 질문을 이어나갔습니다. 다시 교실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소감을 물어봤더니 모두 한목소리로 "우리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도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라고 외쳤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면 선생님께서 칭찬 한번 듣기 힘든 아이들이었지만, 이 작은 시간이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마을의 '스칼'이라는 아이가 PSA 교사를 보며 한 말은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꿈이 생겼어요. 저도 선생님 같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환경이 매우 열악한 어촌 마을에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는 그 말에는 자신도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꿈과 용기를 가지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작은 변화들이 단순히 교육의 결과로만 끝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아이들 각자의 삶과 자존감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꿈꾸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큰 보람이자 원동력이 됩니다.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자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까지

PSA 프로그램의 확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



는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구조가 자리를 잡았다는 점입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주민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는 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을 주민들과 조금씩 대화를 나누며,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한 마을에서 시작된 PSA 프로그램은 여러 마을로 확산되었고, 지금은 각 마을에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드는 미래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는 과정 또한 전혀 순탄치 않았습니 다. 가난한 마을에서는 자원이 항상 부족한데, 주민들은 내 부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았고, 외부 지원 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주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머니들 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확신 과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 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참여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끊임없 는 노력과 헌신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변 화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한 지식 전달뿐 아니라, 아이들의 삶 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믿음이 점차 마 을 곳곳에 뿌리내리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은 이제 외부 지 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손으로 아이들의 내일을 만 들어 가려는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삶과 미래 를 바꾸는 힘은 한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 체가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를 할 때 더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모습 자체가 큰 변화였고, PSA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재건과 성장의 핵 심이 되고, 이를 통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공동체의 미래까지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교육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요 한 것은 저희가 PSA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 다. PSA의 주인은 참여하는 아이들이며, 지역사회가 자발 적으로 주인이 되어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늘 상기하 며, 우리는 그들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 속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으로 PSA 프로그램을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저 희의 꿈입니다.

비록 이곳은 가난과 어려움으로 모두가 외면하며 떠나고 싶어 하는 지역이지만, 이러한 지역에 발을 딛고 사는 아 이들을 위해 PSA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가난과 절망 이 아이들의 희망마저 빼앗아가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 다. 지금 당장은 그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아 이들이 희망을 향해 “만나서 반갑다”라고 말해줄 날이 올 것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 다. 거친 파도를 거스르며 나가야 하는 길이지만 멈출 수 없기에, 아니 멈추면 안 되기에,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아 이들이 희망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힘에 손을 내밀어 주시길, 이 길에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이 현장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PSA



Episode 1.

2025년 9월, PSA가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마을인 끄삼벤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관심이 높아졌고, 마침 ‘김밥’을 만들 예정이니 특별 감사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남이 만든 김밥을 먹는 것은 익숙해도 직접 만들어 먹은 기억이 너무나 오래된 터라 걱정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다 태권도 유단자가 아니듯, 한국 사람이라고 다 김밥을 잘 만드는 것은 아닌데,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밥 재료를 준비해 놓겠다는 현지 교사의 말에 반신반의했는데, 가보니 모든 준비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두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범을 보이며 김밥이 터질까 봐 속으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걸도 속도 예쁜 김밥이 만들어지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든 김밥이 맛도 좋으니 서로 만들어보겠다 나서면서 교육 장소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 가득한 그야말로 김밥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나저나 다음엔 떡볶이를 꼭 배우고 싶다는데 큰일이네요^^ 실력보다 거기까지 갈 비행기표 구하는 게 더 걱정입니다~ 김밥을 들고 행복한 미소로 귀가하던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Episode 2.

우리의 삶에 희로애락이 있듯이 PSA 현장에도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수해를 입어 마을에 진입조차 어려웠던 때도 있었고, 학교가 큰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말랑 남부지역 PSA에서 초등학교 보조교사로 활동했던 아유가 대형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쳐서 한동안 의식을 잃고 왼쪽 다리에 감각이 없어 많은 이들이 마음을 졸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의식을 되찾았고, 감각이 없던 왼쪽 다리의 감각도 돌아온 상태입니다. 고통의 시간에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듯이, PSA 가족들은 수해를 입은 현장에서, 또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는 교사의 침상 곁에서 서로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렇게 PSA는 단지 배움을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의 아픔까지 보듬고 위로하는 진정한 공동체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사업장에는 중심이 될 건물부터 구하거나 건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거기에는 꽤 큰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PSA는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준비한 공간을 활용하고 절감된 비용은 사람을 위해 투자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만약의 경우 외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하고 지역사회가 노력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기꺼이 사업을 접고 철수하기도 합니다. 이런 철저한 노력을 통해 지난 3년간 11개의 PSA가 실시되었고, 그중 1개의 PSA만이 종료되었으며, 10개 중 3개의 PSA는 현지에 이양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도시빈민가를 중심으로 2개의 PSA를 추가로 시작하게 되며, Kampung Tridi를 포함하여 3개의 PSA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말랑 지역의 PSA를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이 사업이 주는 매력과 감동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렌즈의 새 가족, 코이카 YP 박대용, 김하린 간사를 소개합니다!



박대용 간사

김하린 간사

프렌즈는 2025년 2월부터 코이카 YP (영프로페셔널)의 사업수행기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코이카가 우리나라 청년들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ODA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사무소/재외공관 영프로페셔널과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 제도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손현정, 이상신 간사가 YP로 활동하였고, 9월부터 현재까지 YP 2기로 박대용, 김하린 간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렌즈 가족의 비타민으로 밝고 환한 에너지를 가득 채워주고 있는 두 YP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프렌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대용 안녕하세요! 프렌즈에서 해외 아동결연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YP 박대용입니다. 저는 해외 아동과 후원자님을 연결하고, 그 사이에서 결연 후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며 소통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하린 안녕하세요? 프렌즈에서 YP로 함께 하고 있는 김하린 간사입니다. 저는 사업팀에서 일하고 있으며 프렌즈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관리하고 보조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사업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가분들과의 소통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프렌즈에서 YP 활동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프렌즈를 선택하신 이유와 처음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도 궁금해요.

대용 YP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올해 초 KOICA 프로젝트 봉사단으로 3개월간 필리핀에서 영유아 교육 개선 사업에 참여한 경험 때문입니다. 전공을 살려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활동해 보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더 깊이 경험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YP를 한다면 아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싶었고, 여러 기관을 살펴보면 중 프렌즈의 사업 방향이 제가 경험해 보고 싶은 일과 잘 맞는다고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후 첫 출근을 했을 때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실제 업무를 직접 수행해 보고 싶다는 기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린 평소에는 이 분야에 대해 잘 몰랐지만, 긴급구호활동을 하시는 한 외국인 활동가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제 전공과는 좀 거리가 있어서 기회를 갖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던 중 YP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후원하고 있는 단체여서 프렌즈를 알고 있었고, 관심도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구체적인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 저에겐 큰 도전과 배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배움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프렌즈를 만나셨을 때가 기억나세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그리고 함께 몇 개월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일해 보시면서 달라진 점이나 새롭게 느낀 점이 있다면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대용 처음 프렌즈를 방문했던 날은 면접 날이었습니다. 8월 말이라 날씨도 무척 더웠고, 3대 3 면접 형식이라 긴장해서 땀이 멈추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긴장했던 것과 달리 면접관으로 들어오신 두 분의 과장님과 국장님 모두 인상이 너무 좋으셨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면접을 진행하려고 배려해 주시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첫인상은 '참 좋은 분들이구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넘게 함께 일해보면서 그 느낌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프렌즈 구성원분들이 정말 좋고, 덕분에 업무 과정도 즐겁고 보람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린 아직도 처음이 생생히 기억납니다ㅎㅎ 첫 출근이 9월 1일 월요일이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비 오는 날씨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첫 출근 날부터 비가 오는 탓에 조금은 처진 상태로 집을 나섰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오기도 하고, 월요일이라 평상시보다 교통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제가 예상한 도착 시간보다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도착 후 간단하게 사무실 구조가 어떤지 설명을 들었고, 제 자리에 안내받아서 갔을 때 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최상이었습니다^^



처음이라 긴장도 많이 했지만 프렌즈 식구들 모두가 너무 친절하고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점점 마음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환영회를 겸한 함께하는 첫 식사 자리는 아주아주 훌륭하고 맛있는 식당에서 가졌지만, 오전 내내 긴장하고 어색함 속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 생각만큼 잘 먹을 수 없었습니다(절대 대화하는 것이 불편해서 못 먹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원래 프렌즈의 식구였던 것처럼 아주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며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모두가 너무나 즐겁고, 소중한 추억들로 저의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프렌즈에서 맡고 계신 여러 일들 가운데, 일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정말 프렌즈에 오길 잘했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때였는지 들려주실래요?

대용 최근 거의 10년 가까이 후원받은 아동이 대학에 입학해 종결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동이 훌륭한 성적으로 국립대에 진학했고, 앞으로 자신처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는데 제가 직접 후원하던 아동은 아니지만, 후원자님과 아동을 잇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린 아직 이곳에서 일한 지 10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나름 다양한 일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 뿌듯한 순간을 이야기하자면 9월 인도네시아 출장 준비를 지원했던 일입니다. 인도네시아 직업훈련센터 수료식과 현지 이양을 위한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 출장 계획이 세워졌는데 그동안 협력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을 위한 감사패와 선물을 주문해야 했습니다. 사업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분들에게 한국적인 선물을 해드리기 위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을 고심한 끝에 문구를 넣고, 제품 주문을 하고, 마침내 수령을 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현장에서 이 선물과 감사패를 받고 모두 몽글몽글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작지만 무엇인가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수료식에 전달된 감사패

외부 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기관 방문을 통해 국제 개발 분야에 대한 지식을 한층 더 넓힐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했지만, NGO의 노력이 그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정책적 변화까지 이뤄내는 것을 보면서 공공정책을 전공한 학생으로서 큰 도전과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활동하면서 직접 또는 해외에 계신 현장 활동가 등 만난 분들 중에 특히 마음에 남는 분이나, 함께해서 더 힘이 났던 순간이 있을까요? 그때 이야기를 조금 나눠 주시면 좋겠어요.

대용 아직 해외 출장을 다녀오지 못했고, 한국에 오신 활동가분들 중에 일부를 만나 뵈는 것이 전부이지만, 메일로 자주 소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프렌즈데이 홍보 영상을 제작할 때 세네갈 현지 활동가님께 사진과 자료를 요청드린 적이 있었는데, 복잡하고 번거로운 요청임에도 매우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자료를 준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감사했고 저도 한국에서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린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계신 홍요셉 활동가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프렌즈데이라는 행사를 기획하면서 연락을 드린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메일로 소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카톡을 주고받는 것처럼 빠른 회신을 주신 것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편했습니다. 소통의 원활함만으로도 감사한데 그것이 단순한 우연

이 아닌 저희를 위한 섬세한 배려라는 것을 느낀 순간 활동가님과의 모든 소통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의 분주한 일정을 뒤로한 채 저희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YP 활동을 하시면서 국제개발협력이나 NGO를 보는 눈, 혹은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궁금해요. 처음과 지금을 비교해서 들려주셔도 좋아요.

대용 처음에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더 가까운 현장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시작해 보니 제가 만나고 있는 건 주로 모니터 속의 아이들이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국제개발협력과 NGO 운영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현장에서 활동해야 하지만, 누군가는 한국에서 후원자님과 소통하고 양쪽을 연결하는 일을 해야 현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이 결코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일과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린 지금까지는 NGO 하면 아동결연, 우물 개발, 의료봉사 등 제한적인 분야에 대해서만 떠올렸던 것 같은데 일을 하면서 생각보다 넓은 분야에서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와 사업 중에 특히 프렌즈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국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활동을 이어오면서 ‘아, 내가 성장했구나’ 하고 느끼셨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 경험이 앞으로 걸어가고 싶은 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함께 나눠 주세요.

대용 앞선 답변과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하는 일이 현장의 아동 지원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으면서 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일들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된 덕분에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더 지속적으로 일하고 싶어졌고, 지치는 순간이 오더라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하린 이전에는 관련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확실

히 업무를 하며 보고 듣는 내용이 있으니 지금은 뉴스에서나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이는 것들이 잘 이해가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는 저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성장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제 개발이나 NGO 분야, 혹은 이와 닿아 있는 다른 길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대용 국제 개발 분야의 주니어로서 이루고 싶은 꿈은 정말 많습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교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일을 다시 하고 싶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동 교육 프로그램을 프로젝트 형태로 개발하고 현장에서 적용해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 싶다는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린 앞으로의 목표나 꿈이라고 하니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아직도 저는 프렌즈와 일을 하며 저 스스로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은 적어도 국제 개발이나 NGO 분야와 닿아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봉사도 가보고 싶네요. 아직은 짧은 기간만 가능할 것 같지만요^^

CSR 전시회 관람



프렌즈에서 YP 활동을 해볼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대용 직장 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업무 자체보다는 사람에게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렌즈에서 함께 일하게 된 건 정말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일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점만으로도 큰 장점이지만, 프렌즈가 하는 사업 자체도 의미와 보람을 느끼기에 충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린 딱 한 마디만 할 수 있다면... “고민은 시간 낭비이니 얼른들 오세요~”라고 하고 싶네요ㅎㅎㅎ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미처 하지 못한,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나, 프렌즈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대용 저는 무엇이든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제 첫 시작을 프렌즈와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덕분에 이 분야와 제가 하는 일에 더 애정을 갖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린 저의 첫 직장을 프렌즈에서 프렌즈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과 애정이 흘러넘치는 직장님, 과장님, 대리님과 든든한 동기 간사님까지 앞에서 뒤에서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제가 더 빨리 적응하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남은 기간 더 많이 알려주시고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꽃처럼 아름답고, 별처럼 빛나는 아이들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오륜레인보우지역아동센터 이순화 신임센터장



아이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특기 적성 시간



오륜레인보우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이순화

2025년 9월부터 오륜레인보우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맡게 된 이순화입니다. 낯선 곳에 와서 어색할 수 있었던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를 전하며, 새로운 자리에서 첫걸음을 내딛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로 오게 된 계기는 그동안 다양한 현장에서 오랜 기간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일을 하면서, 돌봄 기관이 한 아이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누구보다 깊이 실감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안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을 향해 자원을 연결하고, 아이들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더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프렌즈가 쌓아온 따뜻한

나눔의 전통과, 오륜레인보우지역아동센터가 쌓아온 신뢰와 전문성은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되는 데 큰 용기와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취임 이후 현장을 살피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곳이 이미 사랑과 협력으로 잘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밝게 인사하는 아이들, 아동을 돕는 일과 센터 일에 헌신적으로 앞장서는 교사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해 주시는 후원자와 부모님들의 마음이 오륜레인보우지역아동센터를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귀한 기반 위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할까, 저의 역할을 고민하며 하루하루 배우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의 시간을 통해 앞으로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의 발달 특성과 개별적 필요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 가운데 긍정적인 일상생활 지도, 학습, 정서, 사회성, 문화 활동을 균형 있게 확장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역량의 체계적 강화입니다. 안정된 돌봄은 전문성과 팀워크에서 시작됩니다. 실무자들이 충분히 성장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내부 교육과 외부 교육 연계를 폭넓게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및 후원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센터가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결코 한 기관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교, 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역 단체와의 협력을 촘촘히 연결해 아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님들과 센터는 아이의 하루를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로서, 서로 소통과 신뢰로 연결될 때 아이들은 더욱 건강하게 자랍니다. 작은 의견도 소중히 듣고, 변화가 필요할 때는 함께 고민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건강한 파트너십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으로 센터를 지켜주시는 후원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아이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의 운영과 사업들을 성실하게 공유하며, 신뢰받는 센터로 더욱 성장하겠습니다.

오륜레인보우지역아동센터는 한 아이 한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빛을 더욱 선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저는 현장의 세심한 운영과 조직의 장기적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성장하며, 지역사회가 더 발전하는데 기여하도록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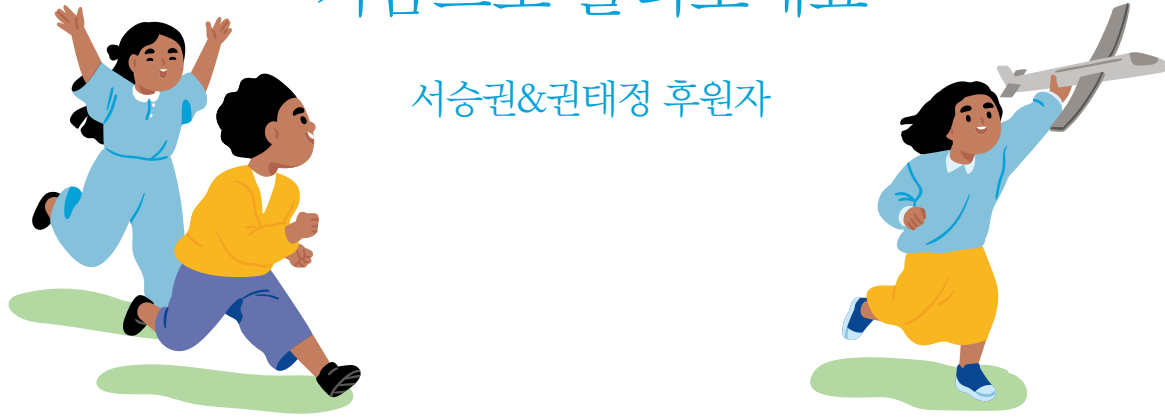
아이들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오륜레인보우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 저금통 모으기로 성내3동 후원금 전달



먼저 경험한 사랑을 기쁨으로 흘려보내요

서승권&권태정 후원자



안녕하세요~ 두 분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헨스를 운영하고 있는 서승권 후원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낯설어하실 수 있지만, 철도, 지하철, 도로 건설 및 주택 등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에 '흙막이 가시설'이라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예요. 함께 있는 아내 권태정 후원자는 수간호사 출신으로 수십 년 동안 아픈 이들과 함께한 베테랑 간호사입니다. 공감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일에 언제나 아낌이 없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올해 초 진행된 '차드 후원자 비전트립'을 통해,

두 분과 프렌즈가 더욱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특히 서승권 후원자님은 비전트립 팀장으로 활약해 주기도

하셨는데요, 준비하는 과정이나 현장에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함께 참여하신 분이 저를 포함해 모두 13분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어려운 과정도 많았지만, 끝까지 마음을 모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출발 전 공항에서 가방을 의자에 놓고 와서 깜짝 놀라 달려가 찾았던 일, 핸드폰이 없어서 위치 추적을 해보니 카트 위에 놓인 채로 공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어서 웃음을 참지 못했던 일, 개인 짐들이 오지 않았지만, 함께 나눠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 일, 신기하게도 다음 날 사용할 물품이 들어있는 가방은 어김없이 도착했던 일, 작고하신 형님 서승달 이름으로 우물을 후원한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마하나임 아이들과 함께한 운동회에서 기쁨과 함성으로 어릴 적 동심으로 돌아간 일, 결연 아동과 함께 놀이동산에서 즐긴 기억, 1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갔던 벳바나, 베베자로 가는 길에 겪었던 숙소의 열악한 상황, 그러나 우리를 진심으로 기쁘게 반겨주었던 그 지역의 모든 분들,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하기 어렵네요.



권태정 후원자님은 현지 아동의 가정에 방문하시면서

오랫동안 방치된 상처를 치료해 주신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치료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지 책임자께서 추천하신 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이 엄마의 모습을 보니 얼굴 한쪽 면이 통통 부어올라 오른쪽 눈을 잘 뜨지 못했습니다. 머리에 난 종기의 상태가 심하고 굵아서 눈까지 뜰 수 없는 상태였고, 반사적으로 머리에 난 종기에서 고름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열이 가득했고 더 악화되면 시력까지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름이 나오는지 한이 없었습니다. 고름을 다 빼낸 후에는 2차 감염이 우려되어 후속 조치로 거즈를 덮고 반창고로 붙여서 손이 닿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날 다시 찾아갔더니 어제와 달리 눈이 반은 떠진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크리스천인데 그 순간 '아-하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구나. 나를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아이 엄마에게는 현지 활동가에 의해 지속적인 후속 관리가 이뤄졌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아이 엄마에게나 후원자님께나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듣기론 이번에 다녀오신 차드 마하나임

학교 안에 보건소가 생겼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권태정 후원자께서 오랜 기간 병원의 수간호사로 활동하셨던

경력을 토대로 직접 차드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하시고 현지 간호사 인력을 훈련하는 등 봉사

활동을 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활동을 앞두신 소감,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시기 될지도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도 그렇고 조금만 신경을 쓰고 예방을 하면 막을 수 있는 병도 속수무책으로 악화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일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택을 리뉴얼해 멋진 보건소를 완성하게 됐어요. 보건소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하고, 교육 자료를 비치하고, 학생과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멋진 공간으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던 좋은 간호사분이 보건소 책임자로 오게 됐어요. 부족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제가 돌아온 이후에도 유용한 지식과 기술이 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합니다. 학교보건 사업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차드지만 제게 지혜를 주셔서 차드 땅에 보건 의료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작은 씨앗이자 좋은 밑거름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두 분 모두 아동 결연 후원에도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와 마음으로 아동 결연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풍요로움과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이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게나마 후원에 동참하고 싶어서 프렌즈를 통해 차드 아동들을 추천받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결연 후원을 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나, 가장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부부가 함께 결연 중인 아이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저희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의 작은 후원이 아이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고 있음을 직접 보고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이 눈에 선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두 분께서 함께 (주)헨스라는 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데요, 결연 외에도 우물 개발, 급식, 보건 의료, 학교 건축 등 너무나 다양한 영역에서 프렌즈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꾸준히 돕는 손길을 내밀어 주실 수 있는 동기, 비결은 무엇인가요~?

(주)헨스(hence)의 어원에는 ‘처음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 또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믿고 있고, 이 기업이 창세기에 표현된 것처럼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힘든 시기도 있었고 극복할 위기도 적지 않았지만, 헨스가 나누고 섬기는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누고 섬길 때 얻는 그 기쁨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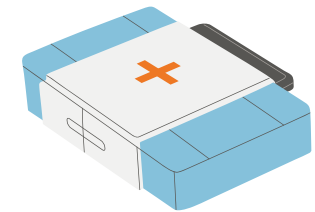
후원뿐 아니라 봉사 현장에서도 두 분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종종 해외 봉사 현장도 찾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생애 마지막에 딱 한 곳만 다시 방문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디를 선택하고 싶으신지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차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드 아이들의 눈망울이 저를 다시 부르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마음은 있지만, 실천의 문턱에서는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후원이나 봉사에 마음은 있지만 주저하는 분들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프렌즈 후원자분들을 위한 응원이 메시지도 좋습니다.

여린 눈망울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내미는 손을 통해 작은 것으로 많은 이들이 먹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변함없이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로써, 주저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마음껏 흘려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요.



2025 프렌즈 하반기 News



한국장학재단 멘토링 프로그램과 함께한 핸즈온

하반기에도 많은 봉사자와 기업 참여로 핸즈온 활동이 더욱 풍성했습니다. 특별히 한국장학재단 '사회 리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교육 현장은 29명의 대학생들의 따뜻하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핸즈온 활동의 의미와 완성품들이 해외 아동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설명을 들은 후,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활동에 몰입했습니다. 각자 창의적인 색 조합으로 완성한 컬러링 에코백과 필통을 들고 서로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 학생은 "내가 만든 에코백이 먼 나라 아이에게 닿는다면 얼마나 뿌듯할까"라며 끝까지 정성을 다했습니다. 해외 아동들의 일상에 작은 응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현장을 채웠고,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아동 교육을 위한 후원음악회 개최

9월 30일, 오륜비전센터 그레이스홀에서 아프리카 아동 교육을 위한 'Solist in Christ with Friends' 후원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사)솔크 아티스트들의 재능기부로 펼쳐진 이 무대는 클래식부터 재즈까지 다채로운 음악으로 가을 저녁을 물들였고, 모든 청중의 귀를 즐겁게 했을 뿐 아니라 진심 어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매년 정기 공연을 통해 후원금을 모아 우물을 후원하고, 음악 아카데미를 통해 아이들의 음악적 역량을 키워온 솔크의 이야기가 음악과 한데 어우러지며 더욱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사진전 선정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주관한 '2025 공익활동사진전'에 프렌즈의 사진이 선정되어, 6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열린 공간에 전시되었습니다. 하루 중 급식 시간이 가장 즐거운 차드 마하나임학교 아이들이 급식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며 운동장에 모이는 그 찰나의 순간을 담은 노우승 작가의 사진이 전시되었고, 프렌즈 후원으로 몸과 마음, 지식이 함께 채워지는 희망의 이야기가 사진과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재지정

지난 9월 30일, 프렌즈가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 단체)으로 재지정 받았습니다(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41호). 이는 그동안 저희가 펼쳐온 사업들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재인정받은 뜻깊은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성과는 프렌즈 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신 후원자분들 덕분이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재지정으로 프렌즈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 자격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후원자님의 소중한 온기가 가장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언제나 투명하고 정직하게 활동하는 프렌즈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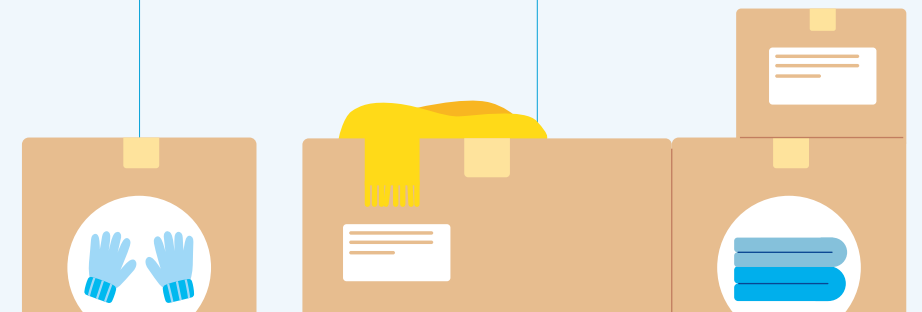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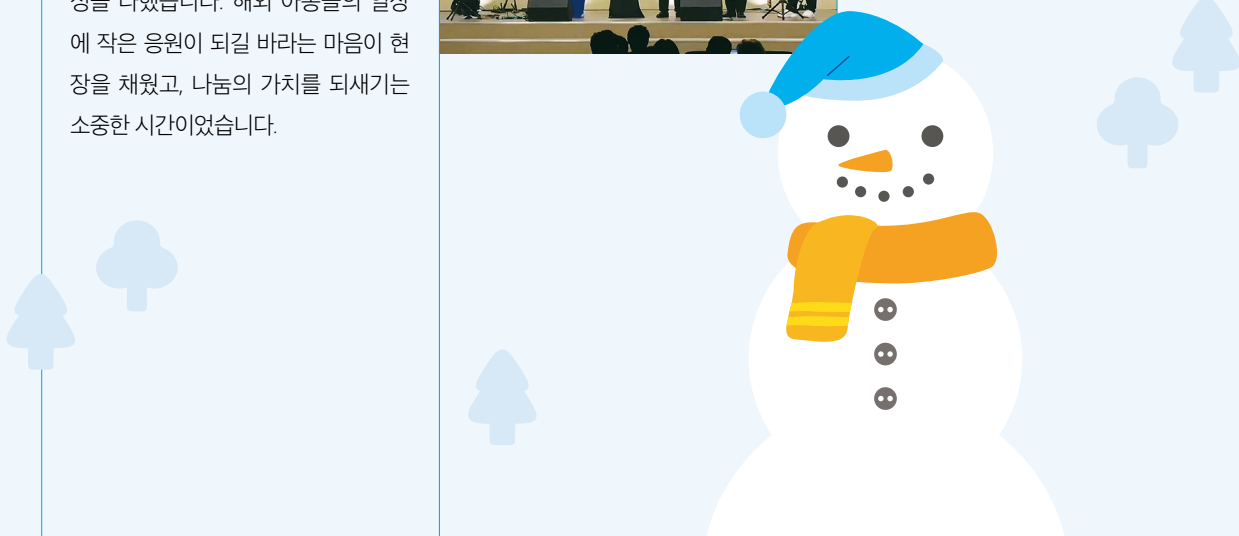


프렌즈 강동구청장 표창장 수여

11월 21일, 프렌즈가 지역사회를 위해 펼쳐온 다양한 공익활동, 특히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강동구청장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강동구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희망나무축제' 현장에서 아동들의 축하를 함께 받으며 상을 수여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긴급돌봄을 위해 항상 아이들 곁을 지켰던 오륜레인보우지역아동센터, 구립길리 청소년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노고에 특히 감사드리며, 강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주)1986프로덕션을 비롯한 여러 후원 기업들, 후원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동구의 좋은 이웃, 좋은 친구로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T&G 상상나눔 'On-정(情)' 활동으로 한파구호키트 전달

인도네시아 직업교육훈련, 카자흐스탄 코리안센터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후원하며 프렌즈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는 KT&G가 국내 기후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한파구호키트'를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12월 15일, KT&G 임직원들이 사옥에 모여 모포, 목도리, 귀마개, 간편식 등을 박스에 담아 패키징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고, 이후 방경만 KT&G 사장과 함께 임직원들이 돈의동 쪽방촌 400세대에 키트를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상편드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구촌에 희망을 주는

좋은 친구 FRIENDS



사단법인 프렌즈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89 금성빌딩 2층

Tel 02-483-5007 Fax 02-6007-9857 E-mail friends@hifriends.or.kr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사단법인 프렌즈

후원계좌 국민은행 777501-04-111940 / 신한은행 100-023-015009

후원자님의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프렌즈에 꼭 알려주세요!



FRIENDS
사단법인프렌즈

www.hifriends.or.kr

